“국제협약 준수” VS “협약 대상서 배제돼야”

문화유산재단, ‘부석사 관음상’ 해결 방안 토론회

문화재 반환 첫 인도소송서
국제협약 상관관계 등 분석

“협약 지키고 반환 후 환수”
“반환해야할 법적 이유 없어”
토론 패널 간 입장 차 명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부석사 관음상)은 도난 장물인지 왜구의 약탈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찾은 것인지를 놓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 반환 관련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이 국제협약이다. 불법 반출 문화재에 대해 적용되는 협약은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불법 반·출입 등에 대한 협약’과 이를 강화시킨 1995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이다.

이 같은 국제협약과 현재 진행 중인 부석사 관음상 인도소송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7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3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재 소송 중인 부석사 관음상에 대한 국제협약 영향 유무와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처음부터 패널들의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손경한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유네스코 협약이 가지는 한계성을 먼저 되짚었다. 손 변호사는 “유네스코 협약은 자기집행적 조약이 아니라 자국 입법을 통해 구속력을 가지는 구조”라면서 “협약의 수범자는 국가이지 개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1970년 이후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만 적용되며, 이전 시기의 것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부석사 관음상 사례가 유네스코 국제협약에 적용되는 사례임을 분명히 했다. 도난 당시 불상의 점유지는 일본이기 때문에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근거되는 법은 일본법이 기준되며, 정당한 점유자의 인도 청구가 있으면 한국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게 손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불상이 과거 약탈돼 불법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어도 국제협약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법령이 적용돼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석사의 인도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부석사의 소유권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면 자력 구제를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부석사 관음상 인도소송 법정 대리인인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대표변호사는 현재 부석사 관음상은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반환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유네스코 협약은 각 체결국이 협약 이행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1970년 협약 이전에 약탈된 문화재가 다시 불법적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협약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협약 이행법률인 문화재보호법 제20조 5항은 협약 이전에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돼야 옳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이 부석사 관음상을 돌려줄 법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문화재 약탈 피해국가”라며 “법률적으로 반환한 이유가 없는데도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문화재 환수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어느 가해국가가 알아서 문화재를 돌려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관음사의 점유를 기준으로 합법적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극단적 ‘문화재 관련 국제주의’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약탈 문화재 보유국들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외국 문화재들이 취득 당시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문화·역사와 분리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됐음을 내세워 적법성을 강조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현 상태의 유지로서 ‘야만시대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재판 중 일본은 정당한 취득 경위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연구로 약탈 문화재임이 명확해졌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막연히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들어서 반환을 요구하거나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기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부석사 관음상 인도소송은 민간 영역에 머물렀던 문화재 반환이 사법적 영역으로 넘어온 첫 사례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사법적 판단은 감정적 국수주의가 아닌 대외적으로 당당히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부석사 관음상은 유네스코 적용 사례”라면서도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유네스코 협약 제7조 2항에 따라 부석사에 ‘문화재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일본 관음사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다. 그 후 한국과 일본의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돈황사본, 불교학에 미친 영향 살피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등
‘돈황사본’ 국제학술대회

한·중·일 학자 20여명 참여
中 초기 상속사상 등 발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중국 런민대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일본 도요대 동양학연구소는 공동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일 양일간 ‘돈황사본과 불교학’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서 문명의 교차로 돈황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불교학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는 중국 런민대(人民大)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일본 도요대(東洋大) 동양학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일 양일간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돈황사본과 불교학’을 주제로 제7회 한·중·일 삼국공동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중·일 삼국의 돈황 연구자 20여명이 참가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돈황사본 관련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스징펑 중국 중앙민족대 교수는 중국 초기 불교의 ‘상속사상(相續思想)’ 형성을 돈황사본을 통해 추적했다.

‘상속사상’은 불교의 인생·윤회관, 해탈론과 밀접한 개념이다. 스징펑 교수는 돈황사본 P.3291, P.2908, 〈법화경문외의〉 등 세 문서에서 상속사상의 전개를 살폈다.

스징펑 교수는 “P.3291, P.2908, 〈법화경문외의〉에서 강조한 ‘중생작불·불속중생’의 명제에서 상속사상의 불성론 기초가 추정된다”면서 “남북조시대의 불성론 중 하나인 ‘명전불후의(冥傳不朽義)’가 직접적으로 상속으로 ‘정인불성(正因佛性)’으로 이해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사상은 처음에는 신불멸론에 가탁해 ‘상속중도’ 개념에 도달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정통 불교이론과 결합해 발전했다”면서 “중국 초기 불교의 상속사상은 중도·불성·진무이제 등의 개념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해 복잡하고 다양한 이론적 특징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차상엽 금강대 교수가 ‘종교의식 매뉴얼과 마하연의 선지(禪旨)’를, 최근 지론종 연구로 학위를 받은 이상민 동덕여대 교수가 ‘지론문헌 내 〈본업영락경소〉(S.2748)의 위치’를, 금강대에서 박사를 수료한 신사임 박사가 ‘북주(北周) 도안(道安)의 〈이교론〉과 당(唐) 법림(法琳)의 〈변정론〉과의 관계’를 발표했다.

중국 측에서는 장원량(張文良) 런민대 교수의 ‘남조 성실종(成實宗)의 이제설(二諦說)’, 양위페이(楊玉飛) 의춘학원 교수의 ‘조법사(照法師)가 찬술한 〈승만경소〉(S.524)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평창 오대산 적멸보궁’ 보물 지정

문화재청 3일 공고… “조선 전기 다포식 대표 건축물”

평창 오대산 월정사 적멸보궁〈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인 ‘월정사 적멸보궁’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95호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으로 지정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중대 적멸보궁’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내·외부가 이중 건물로 된 불전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중대 적멸보궁’은 정면 3칸·옆면 2칸의 건물 내부에 다시, 정면 3칸·옆면 2칸의 건물이 있다”면서 “이는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구조로, 내부 건물과 외부 건물이 시대를 달리하여 내부 공간을 확장 또는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물로 지정된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사찰,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18년 학술논문 공모

오는 9월 14~30일 접수

불교학과 천태학 진흥을 위한 학술공모가 이뤄진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은 “불교학의 진흥과 신진 학자의 연구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천태불교학술논문을 공모한다”고 6월 2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천태학(교리, 역사, 기타) 1편과 불교학 전반(교학, 역사, 응용 등) 2편으로 응모 자격은 박사과정 수료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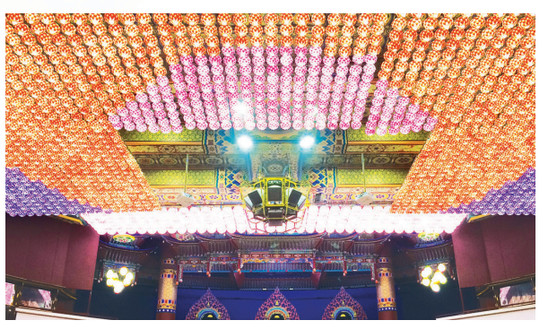
제출 서류는 완성 논문과 이력서, 3년간 연구실적물이며, 응모 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다.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며, 연말에 발간되는 〈천태학연구〉제21집에 게재한다.

또한, 우수 논문 1편은 11월 10일 열리는 2018년도 천태불교학술대회에서 발표된다. (02)3460-5226~8

신성민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